제천 참사 잊었나…다중이용시설 위법 수두룩

광주소방본부, 스포츠센터 ·목욕탕 등 109곳 특별조사

비상구 폐쇄·피난유도등 미설치 등 38곳 114건 위법 적발

자동유리문 수동조작법 표지 부착 등 법령 개정 건의하기로

광주지역 목욕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 등 복합 다중이용시설이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등으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직후 유사 건물 53곳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56곳 등 모두 109곳을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34.9%에 해당하는 38곳이 소방법령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특별조사는 여성 소방공무원과 소방·전기·가스·건축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0개반 40명을 편성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관리 상태 ▲비상구·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화재위험·인명피해 우려 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109곳 중 38곳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방화구획 훼손, 피난유도등 미설치 등 소방시설 불량 및 건축물 임의 증축 등 114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피난설비 51건, 소화설비 24건, 경보설비 22건, 전기·가스·건축 17건 순이다.

이 가운데 비상구를 폐쇄한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화구획 훼손, 건축물 임의 증축, 내부구조 변경 및 전기·가스시설이 불량한 14곳은 기관통보, 나머지(중복 포함)는 피난유도등 점등불량·감지기 탈락·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등 소방 및 기타 분야 불량 등으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유리문 수동조작 방법 표지 부착 ▲목욕장 등 관계자 긴급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성 전용 공간의 소방점검 시 여성인력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필로티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필로티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피난하기 쉽게 반대편 또는 도로면에 접하도록 설치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중복합시설은 내부 구조가 복잡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로 인해 비상구를 찾기 매우 어렵다"며 "건물 관계자는 피난통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소방시설 정상 작동을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는 비상구를 미리 확인하는 등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 건물 53곳 외에도 일반 찜질방과 목욕장 276곳에 대해서도 오는 12일까지 전수점검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어지럽게 널린 불법 현수막 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교통섬에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는 불법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끊이지 않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2척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무단으로 침범해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대련선적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7일 오후 7시4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96km(어업협정선 내측 1.5km) 해상에서 280t급 중국 저인망 어선 요대금어 15031호 등 2척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번에 나포한 저인망 어선 2척은 무허가로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 서해어업관리단의 검문 검색으로 붙잡혔다.

어선에는 각각 15명의 승선원이 있었으며, 나포 과정에서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 후 선원들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5일 새벽 3시께 신안군 가거도와 흑산도 등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여 6000kg 상당의 고등어를 어획한 중국 저인망 어선 3척을 나포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기상악화 등을 틈타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려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며 "어업인 보호 및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38년 묵은 불법주택, 철거 후 신축 행정처분은 부당"

38년 전 불법 전용된 농지에 건축한 주택을 양성화하려던 주택 소유주에게 철거 후 신축하라는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 남원읍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사항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0년 전 사망한 시아버지 B씨가 1979년 자신의 밭에 지은 75.33㎡의 주택에 남편과 함께 거주하다 2005년 매매를 통해 밭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시아버지 B씨는 1975년 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 바로 옆에 문제의 주택을 지을 때 농지 전용신고와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2016년 4월과 6월 "해당 주택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주택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조치를 명했다. A씨는 원상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서귀포시는 그해 8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주택의 건축신고절차에 대한 추인을 구하는 취지로 서귀포시에 건축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농지전용 여부에 관한 협의도 요청했으나, 서귀포시는 불가를 통보하고, 건축신고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농지법에 따른 전용신고절차 등을 새로 거쳐 사실상 동일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섬 여교사 성폭행범 형량 늘어날까

대법 공모 인정에 파기환송

광주고법서 결심 공판 열려

17~25년 구형…29일 선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29일 열린다.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만큼 이들의 형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해 여교사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학부형으로서 자녀의 교사를 성폭행한 점,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1·2심과 같이 징역 17~25년을 구형했다.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모두는 여전히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성희롱·폭행 당했다" 여중생 16명이 교사 고소

광주의 한 중학교 여학생 16명이 교사로부터 성희롱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A중학교 학생 16명이 최근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 B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북부경찰에 고소했다.

학생들은 생활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폭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일부 학생들은 성희롱을 당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시교육청을 통해 "B교사가 용모가 단정치 못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을 매로 한 대 때리고 격려 차원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을 뿐 학생들이 주장하는 대로 다리를 만지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은 해당 학생들과 교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해외출장 중 여직원 성추행

광주시 간부 공무원 중징계

해외출장에서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 간부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혐의가 있는 A과장(4급)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과장은 지난해 5월 8일 대만 출장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시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 B씨를 끌어안고 음담패설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약식기소됐다. A과장은 피해자 B씨가 시 감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직위해제된 뒤 수사 등을 받아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송유관 기름 훔치다 '火르륵'…30m 불기둥에 2명 중화상

쌍나팔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 불을 내고 달아난 일당이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로 경찰에 검거.

○…8일 전북 완주경찰에 따르면 A(61)씨 등 4명은 지난 7일 새벽 2시55분께 전북 완주군 한 야산에 매설된 휘발유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고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을 내고 달아났다는 것.

○…당시 송유관에서 분출된 기름(4500ℓ)에 불이 붙어 불기둥이 30m 높이까지 치솟았는데 A씨 등 2명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은 채 경찰에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도주 중.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최고의 투자가치 / 자신있게 추천 /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북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411-10번지외 10필지
(월정 삼거리 코너, 구 월정초등학교 자리)
■ 대지 5843평, 건물 512평
■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 등등
■ 현재 관관농원/ 펜션/ 식당/ 캠핑장 운영중
■ 2차선 도로접, 삼거리 코너, 계곡등 최고의 위치
■ 연수원/ 수련원/ 요양(병)원/ 펜션/ 캠핑장 등등
모든 용도개발 가능
■ 시세 30억, 급매 20억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010-3605-5000